

Kodex^{ETF}와 함께 만드는 Viewtiful Week

조수민 책임매니저
Vol.9 2024.12.03

Executive Summary

- 미국 증시는 연말 소비 시즌 기대로 강세. BOJ 12월 금리인상 전망으로 달러화는 반락
- 미국: 연말 소비 증가가 이익 개선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기소비재 업종에 관심
- 한국: 금통위 2회 연속 금리 인하로 경기 부진 우려 점증. 장기물 국고채 매수가 대안

●●● 이번 주엔 무엇을 볼까

뉴욕 증시는 연말 소비 시즌 기대로 강세

뉴욕 3대 지수는 지난주에 이어 재차 상승했으며, 특히 연말 소비 시즌 기대감이 강화되며 경기소비재, 부동산 등 경기민감업종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편, 달러인덱스(DXY)는 105pt를 터치하며 최근 상승 분을 되돌렸다. 11월 도쿄 근원 CPI가 전년비 2.2% 상승해 전월치(1.8%)와 예상치(2.1%)를 상회하자 BOJ의 12월 금리 인상 전망이 강화되며 달러-엔 환율이 150엔선을 하향 돌파한 영향이 컸다.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도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스콧 베센트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완급 조절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며 전주 대비 각각 22.2bp, 23.17bp 하락한 4.1%, 4.17%로 마감했다(29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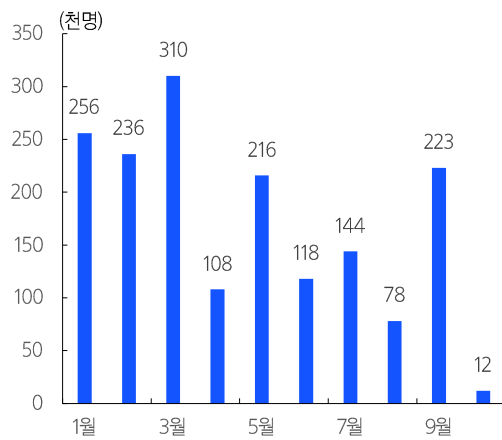
한국: 2회 연속 금리 인하로 경기 부진 우려 점증

지난 28일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해 10월에 이어 2회 연속 금리 인하에 나섰으며,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2%, 1.9%로 0.2%p씩 하향 조정했다. 부진한 성장의 원인을 내수가 아닌 수출로 꼽으며, 성장 경로의 변수로 '통상 환경'을 새롭게 추가했다. 다음날 공개된 10월 산업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 모두 예상을 하회하면서 금통위의 금리 인하가 '사후적' 조치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국내 증시 투자심리 위축이 지속됐다.

월초 주요지표 확인 + 달러-엔 환율도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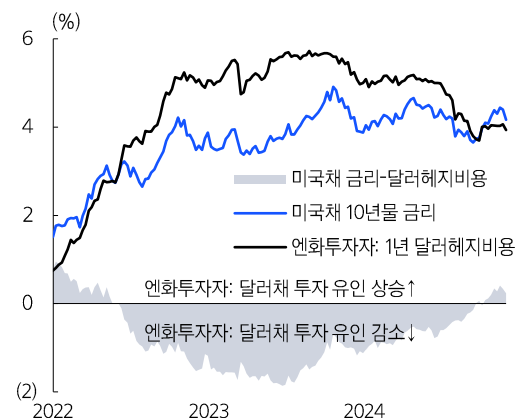
이번 주는 미국 구인·이직 보고서(JOLTs, 12/3), 11월 ADP 민간고용, ISM 비제조업 PMI(12/4), 고용보고서(12/6) 등 주요 지표들이 대거 발표된다. 허리케인 여파 등으로 대폭 급감했던 10월 비농업 고용(1.2만 건)의 상향 수정과 11월 고용 정상화 여부가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의 변수가 될 수 있어 가장 큰 관심사다[그림 1]. 블랙아웃 기간(7-19일)을 앞두고 예정된 파월 의장(4일) 등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지난주 달러-엔 환율이 150엔선 하향 돌파를 시도하면서 엔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학습효과 덕분에 엔캐리 청산 우려는 제한되고 있으나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만큼 BOJ의 추가 국고채 매입 여부와 달러-엔 환율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그림 2].

[그림1] 2024년 월별 비농업 고용 추이



※ 자료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그림2] 엔화 투자자: 달러채 투자 유인(+)



※ 자료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 삼성 Kodex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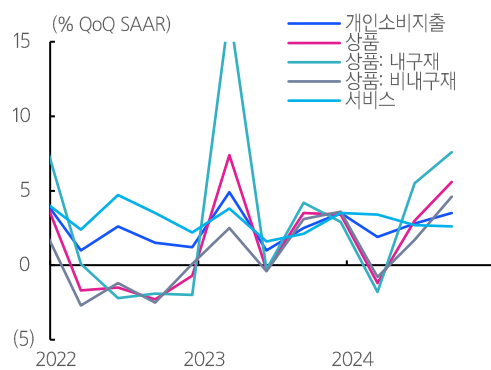
연말 소비 증가가 이익 개선으로 나타날 경기소비재 관심

어도비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전자상거래 매출액은 108억 달러로 전년비 10.2%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며, 온라인 소매판매를 중심으로 견조한 소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기준 금리 인하로 가계 소비 여력이 개선되면서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그림 3]. 연말 소비 증가가 이익 개선이 나타날 수 있는 경기 소비재와 같은 업종에 대한 관심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부진한 한국 경기에는 장기물 국고채 매수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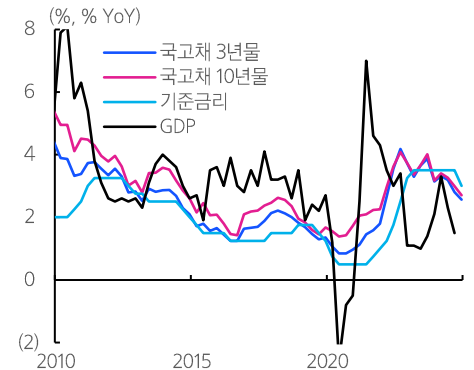
지난 1일 공개된 11월 한국 수출은 563억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1.4% 증가에 그쳤다. 4개월 연속 전년비 상승 폭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업일 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은 전년비 10월 (-)0.2% 감소에서 11월 3.6% 증가로 개선됐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전년비 수출액이 증가한 품목은 컴퓨터, 선박, 반도체 등 5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향후 수출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 증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단, 코스피는 12개월 Trailing PBR 기준 0.86배(29일)로 저평가 영역에 위치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추세적 상승은 요원하더라도 추가 하락 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코스피는 바닥 잡기에 나설 공산이 크다. 한편, 금통위는 12월 통방문에서 향후 금리 인하 속도를 시사하는 문구에서 '신중히'를 삭제해 내년 1분기 내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장기물 국고채 매수를 통해 국내 경기 부진에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그림 4].

[그림3] 미국 GDP 내 개인소비지출 세분화



※ 자료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그림4] 한국 국고채, 기준금리, GDP 추이



※ 자료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 Viewtiful Week를 위한 삼성 Kodex ETF 3

01 Kodex 미국S&P500경기소비재 (종목코드:453660)

연말 소비 증가가 이익 증가로 연결될 미국 경기소비재 섹터 ETF

- 경기 민감 업종으로 미국 경기 낙관론과 연말 소비 시즌 기대감 수혜 예상
- 주요 투자대상: Amazon, Tesla, Home Depot, Booking, McDonald's 등 50종목
- 합성총보수 : 연 0.3662%, FY2023 기준 증권거래비용 0.3419% 발생, 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02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종목코드:498400)

코스피200 상승참여 + 타겟 위클리 콜옵션 매도 ⇒ 월중배당 ETF

- 목표 분배율 '연 15%+코스피200 배당수익률': 연 17%(매월 1.4% 상당) 추구
- 국내 주식 매매차익 '비과세'와 코스피200 옵션 프리미엄 '비과세'로 절세 효과 UP
- 총보수 : 연 0.39%(운용 0.359%, AP 0.001%, 신탁 0.02%, 사무 0.01%), 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03 Kodex 국고채30년액티브 (종목코드:439870)

국내 경기 침체 시 포트폴리오 방어에 유리한 우리나라 장기 국고채 ETF

- 듀레이션 19.7년('24년 12월 2일 기준)으로 금리 인하 시 높은 자본 차익 추구 가능
- 주요 투자대상: '48년 3월 만기, '49년 3월 만기, '54년 9월 만기 국고채 등
- 합성총보수 : 연 0.0669%, FY2023 기준 증권거래비용 0.0118% 발생, 위험등급: 5등급(낮은 위험)

※ 삼성자산운용, 2024년 12월 3일 기준※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와 관련한 저작권은 삼성자산운용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본 자료를 복제 및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으며, 본 자료를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삼성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서 소개하는 투자방법은 개별 투자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으로써, 본 자료를 참고한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의 결정에 의하여야 하며, 당사는 투자자의 판단과 결정,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외화로 표시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변동 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삼성자산운용 이외의 자료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 전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및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연금 외 수령시 세액공제 받는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며,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금 분배 방식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 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